

보도자료

2021. 9. 14.



상해한국학교

SHANGHAI KOREAN SCHOOL

입학홍보부 ☎ 6493-9517

자료문의: 입학홍보부 ☎ 021-6493-9517 부장: 입학홍보부장 정미영 담당: 정미영

제목 : 상해한국학교, 제20회 대한민국독서토론논술대회에서 우수한 성과 거둬

상해한국학교(교장:전병석, 지도교사:정미영)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및 14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토론 논술 대회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제20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서 단체전 우수상 및 개인전 금상 등 참가학생 모두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와 해외 거주 한국인학교 학생 등 모두 422개 학교에서 89,669명의 학생들이 응모하여 본선 진출을 다투었고,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줌(Zoom)을 통해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상해한국학교 학생은 모두 본선을 통과하여,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개인전 본선대회는 2021년 8월 21일(토) 14:00 - 18:40 동안 전 세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개인전은 대상도서인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핀란드가 천국을 만드는 법’(정경화), ‘관점 vs 관점’(이종보)의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식 독서토론 및 독서논술 활동을 하였으며, 독서토론과 독서논술 결과를 모두 세 차례 심사한 결과 독서토론(50%)과 독서논술(50%)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단체전 본선대회는 ‘인간 없는 세상’(앨런 와이즈먼), ‘미래를 읽다 과학이슈 11’(김재완 외 10)을 바탕으로 제1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인 정책 논제와 제2주제인 “환경 보전을 위하여 인류의 문명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의 찬반논제로, 2021년 8월 14일(토) 10:00부터 15:00까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해한국학교의 10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인간 있는 세상’팀(차예은, 한지원, 조재현)은 용인외고와 연이어 원주 진광고를 꺾고 8강에 진출했으나, 준결승에서 청심국제고에 분패하여 우수상 수상하게 되었다.

2021년 9월14일 공지된 대회 결과에 따르면, 상해한국학교는 개인전 금상-차예은(10학년), 개인전 동상-최은수(10학년), 개인전 장려상- 한지원(10학년), 송은채(10학년), 단체전 - 우수상(차예은, 한지원, 조재현), 개인전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에게 수여하는 개인전 최우수 지도학교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1년 10월 16일(토) 오후 3시, 원주시의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런 우수한 성과는 지도교사인 정미영 선생님과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원격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만나 열심히 준비한 결과이며, 상해한국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작년을 제외하고, 6년간 같은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하는 토론 논술대회 명가임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회 개최-MBC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대회 집행부 회의

2021. 9. 14.

상해한국학교장